

9

한국어가 걸어온 길

한국어의 친족 관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수백 년 전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해 간다. 15세기 문헌인 “용비어천가”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다.

불휘 기픈 남근 브락매 아니 월씨 꽃 도코 여름 하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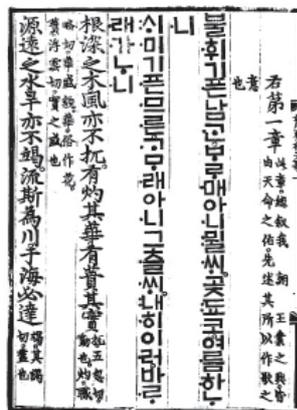
이 구절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로 풀이할 수 있는데 현대 한

국어 화자는 이러한 뜻을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불휘’는 현대 한국어에서 ‘뿌리’로, ‘곶’은 ‘꽃’으로, ‘여름’은 ‘열매’로 바뀌었다. ‘월씩’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않는다. ‘남근’이나 ‘박락매’의 ‘·’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모음이 되었다. 이처럼 예전의 한국어와 지금의 한국어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아득한 옛날 한국인의 조상은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 문자로 기록된 것이 없는 선사시대 이전 한국어의 모습을 짐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어떤 언어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 가운데,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볼 때

몽골어나 만주어, 터키어와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법적으로 유사한 일본어와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라는 주장이 있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다.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계통상 관계가 없다.



» 용비어천가



세월과 함께 변화해 온 한국어

역사시대 이후 한반도의 언어는 대체로 북방의 부여계와 남방의 한계 언어로 나뉘고, 그 뒤를 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언어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당시 언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로 나뉘어 있던 한반도는 668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당시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언어의 중





심지가 된다. 삼국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한자어들이 들어와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이중적인 어휘 체계를 이루게 된다.

통일신라를 이은 고려의 건국으로 언어의 중심지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이동하는데 고려 시대의 언어는 통일신라 시대의 언어를

계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말 조선이 들어서면서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이동했지만, 개성과 한양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언어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중세의 한국어

고려가 나라를 세운 때인 10세기부터 임진왜란이 발생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중세국어 시기에 와서 한국어 어휘 체계 안에 한자어가 더욱 급증했다. 중세국어 전기까지는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고유한 문자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

은 말로는 한국어를 하면서 글을 쓸 때는 한자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했다.

현대 서울말과 달리 중세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다. 또 한국어의 특징인 모음조화 현상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졌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인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보다 높임법이 더 복잡하게 발달했다. 이웃 나라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한자어 외에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했다.

근대 이후의 한국어

한국어는 17세기를 전후하여 사뭇 큰 변화를 겪는다. 17세기 초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의 시기를 근대국어 시기로 분류한다. 이 시기에는 성조가 사라지고, 중세국어 시기에 있었던 모음 가운데 ‘·’가 사라진다.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법이 단순해진다.

19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현대국어 시기라고 한다. 100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한국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개화기 시기에는 한국어와 국문에 대한 자각으로 한자 전용 관습을 버리고 언문일치를 강

조했다. 한글 전용 운동으로 국문체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1910년에서 1945년 사이 한반도가 일본에 병합되면서 한국어는 크게 수난을 당한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일본어 어휘가 한국어에 흘러들었는데 해방이 된 뒤로도 오랫동안 일본어의 그림자가 한국어에 남아 있게 된다. 해방 뒤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갈라지고 지금까지 분단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언어 이질화가 지속되고 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다수의 피난민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는 여러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는다. 또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서구권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한국어에서 서구 외래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10

지역에 따라 다른 말

한 뿌리에서 난 가지들

한국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2008년 현재 한반도의 면적은 남한과 북한을 합쳐 22만 3,273km²에 이른다. 이는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84위에 해당하는 크기로, 대한민국은 국토가 큰 나라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르는 ‘개구리’의 이름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 '개구리'의 방언

방언	지역
개구락지	충청
먹저구리	강원
먹자귀	평남
먹장구	황해
개굴테기	전북
개고레기	전남
가개비	제주

» 방언에 따른 표현의 차이

방언	지역
괜찮습니다	서울
일 없구만유	충청
됐어라	전라
개안타	경상

한 뿌리에서 출발한 언어라 해도 큰 산맥이나 강 같은 자연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다른 지역과 교류가 끊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마다 언어의 모습이 다르게 변해 가기 마련이다. 이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달라진 언어들을 방언이라 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들의 여러 방언들은 한국어라는 한 언어로 묶인다. 한국의 방언들은 어휘뿐 아니라 표현 면에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 '개구리'의 지역별 방언



한국어 방언들의 특징

한국어의 방언은 말소리나 문법, 어휘 특성에 따라 크게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중부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으로 나뉜다.

중부 방언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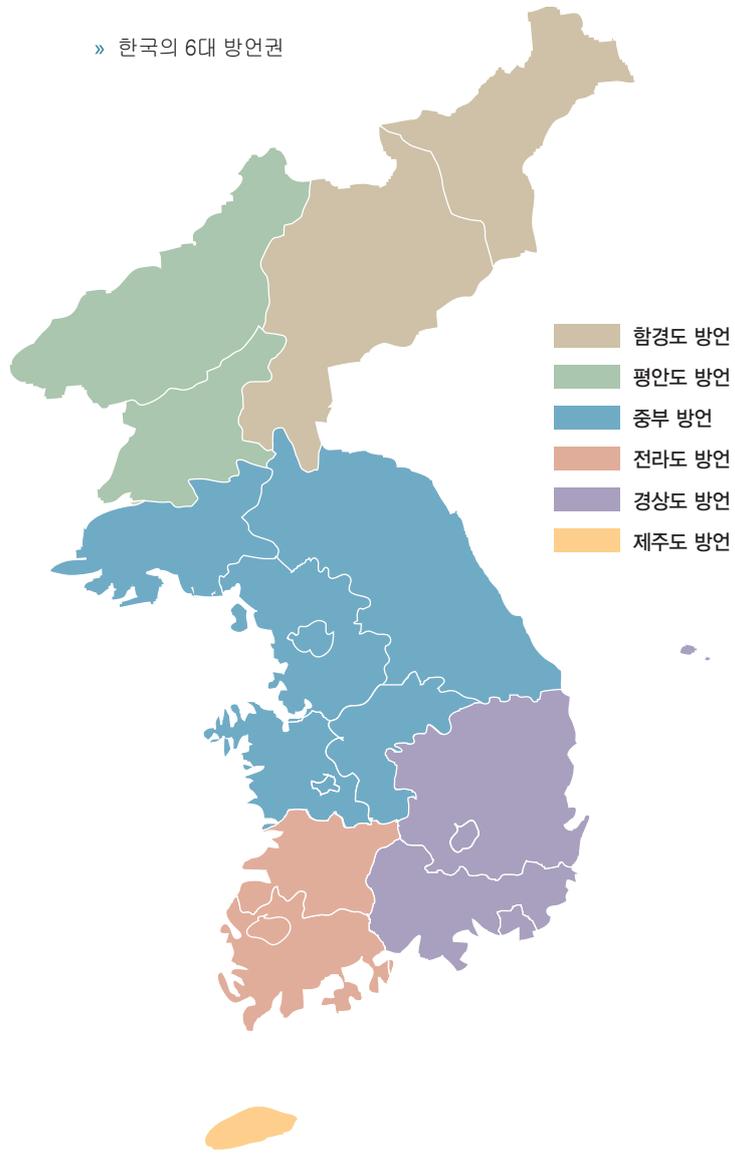


역에서 쓴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충청도 방언은 서울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 끝에 ‘-유, -슈, -여, -야’ 등을 붙여 길게 늘어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이 다소 느리고 느긋하여 점잖은 인상을 준다.

전라도 방언은 짧고 간결하며, 말끝에 ‘잉’을 붙여 구수한 말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잉’은 서울말의 ‘응’에 해당하는 말인데, 쓰이는 범위는 서울말의 ‘응’보다 넓다. 서울말의 ‘가죽’을 [까죽]으로, ‘두부’를 [뚜부]로, ‘도량’을 [또량]으로 발음하는 등 어두를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모음 체계는 대체로 서울말과 비슷하다.

경상도 방언은 말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말의 높낮이가 뚜렷하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다소 무뚝뚝하게 들린다. 방언 가운데 모음의 수가 가장 적어서 ‘ㅐ’와 ‘ㅑ’, ‘ㅓ’와 ‘ㅗ’가 잘 구분되지 않으며, ‘ㄴ, ㄹ, ㄱ’ 등 이중모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지역에

» 한국의 6대 방언권



따라 서울말의 ‘ㅅ’을 발음하지 못하여 ‘ㅈ’으로 내기도 한다.

평안도 방언은 억양이 거세 다소 무뚝뚝한 인상을 준다. 서울말과 달리 ‘덜그릇(질그릇), 티다(치다)’처럼 구개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닐굽(일굽)’처럼 어두에서도 ‘ㅣ’모음 앞에서 ‘ㄴ’을 발음하기도 한다.

함경도 방언은 경상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높낮이의 구별이 있지만 경상도 방언의 높낮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말의 속도가 빠르며, ‘-둥’, ‘-지비’, ‘-꾸마’와 같은 말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방언의 모습이 가장 독특하다. 제주도 방언은 대체로 말이 빠르며 짧다. ‘ㄷ리(橋)’, ‘ㄴ물(나물)’, ‘쌀(쌀)’처럼 현대 서울



말에서는 사라진 ‘·’로 표기되었던 발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 ‘비바리(처녀)’, ‘구덕(바구니)’, ‘오름(산)’ 등 제주의 향토적 특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낱말들이 많다.

방언들 사이의 소통

한국어는 지역에 따라 방언의 특색이 뚜렷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방언 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지는 않다. 요즘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자연적인 장애가 해소되고 방송이나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방언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방송이나 교육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지역민들끼리는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도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



방언의 가치

한때 방언은 열등하며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방언은 오랫동안 언어의 순수성을 지켜오면서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제주도 방언을 비롯하여 사라져 가는 방언들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지역어 경연대회의 한 장면

11

둘로 나뉜 한국어

남북한 언어는 왜 달라졌나

1945년에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60년이 넘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무엇보다도 한국어라는 공통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 한반도의 분단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없었다. 신문이나 방송,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교류도 막혀 있어서 일반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 보니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조금씩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표준어’와 ‘문화어’

현재 남한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분단 초기에는 북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1960년대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서울과 평양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두 지역의 말은 기본적으로 방언적인 차이가 있다. 남과 북의 언어가 이질화된 데에는 지역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남한은 정책적으로 국민의 언어 사용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국어순화운동’을 펼치긴 했지만, 대체로 언어 사용은 말하는 사람의 선택에 맡겼다. 반면에 북한은 언어를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규정하고 주체 사상을 실현하



» 남한과 북한

는 수단으로 인식했고, 남한보다 언어 정책 면에서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유어를 중시한 북한

북한이 시행한 언어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휘 정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어휘 정리 사업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유어로 고쳐 어휘 분야에서 주체성을 세우면서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어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용어에서부터 각 분야의 전문 용어에 이르기까지 말다듬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보급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체육 용어의 경우 남한에서는 ‘레드카드’(축구), ‘케이오’(권투), ‘드리블’(배구)과 같은 용어를 외국어 그



대로 사용하는데 북한에서는 ‘빨간딱지’, ‘완전넘어뜨리기’, ‘두번 치기’ 같은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이런 고유어 중시 정책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달라지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외래어 수용의 차이

북한이 남한에 비해 외래어에 대해 덜 관용적이긴 하지만,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방 후 남한이 주로 영어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였다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어에서 들어왔다. 나라이름처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도 남한은 영어 식으로, 북한은 러시아 식으로 발음한다.

남한의 외래어	북한의 외래어
트랙터 (tractor)	뜨락또르 (трактор)
캠페인 (campaign)	깜빠니야 (кампания)
불도저 (bulldozer)	불도젤 (бульдозер)
그룹 (group)	그루빠 (группа)
러시아 (Russia)	로씨야 (Россия)

같은 말, 다른 뜻

한편, 형태가 같은 단어라도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어버이’는 친부모를 이르는 말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다. 남한에서 ‘궁전’은 임금이 기거하는 집을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교양 수단과 체육·문화 시설을 갖추고 정치·문화·교양 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을 말한다. 남한에서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여사’, ‘선물’, ‘자제’, ‘덕’ 같은 말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나 당 일꾼에게만 한정해서 쓸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후 사회의 다방면에서 새로이 펼쳐진 현상들을 반영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신어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북한에서는 ‘밥공장’, ‘인민배우’, ‘평양속도’ 같은 단어를 만들었고 남한에서는 ‘새내기’, ‘도우미’, ‘교통체증’ 같은 단어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말하는 방식과 태도의 차이



남북한의 말은 어휘뿐 아니라 발음이나 어조, 문체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음으로 말하거나 돌말고 하말고 속말고도 빠른 편이며 대체로 좀더 큰 소리로 말한다. 북한 사람들은 주로 짧은 문장을 써서 전투적이고 선향이 있다.

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원래 있



어 공동체로 남아 있다. 또 예전에 비해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한이 함께 국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등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12

예절 바른 한국어

낱말을 이용해서 높이기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 사이의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언어 사용 면에도 그대로 드러나 상대방을 말로 대접하거나 공경하는 높임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서 일반적인 어휘와 높임 어휘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댁’, ‘진지’, ‘생신’, ‘성함’은 각각 윗사람과 관련된 ‘집’, ‘밥’, ‘생일’,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먹다’나 ‘자다’, ‘있다’, ‘죽다’에 대해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돌아가시다’는 윗사람의 행동을 높여 이르는 말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는 예사말이지

일반 어휘	높임 어휘
집	댁
밥	진지
생일	생신
이름	성함
먹다	잡수시다
자다	주무시다
있다	계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만, ‘진지를 잡수시다’라고 하면 높임 말이 된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인칭 대명사인 ‘저’나 ‘저희’는 각각 ‘나’와 ‘우리’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여쭙다’는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릴 때 자기가 하는 말을 낮추어 이르는 데 쓰고, ‘뵙다’는 웃어른을 만나는 자신의 행동을 겸손하게 낮추어 말할 때 쓴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가리

킬 때 높이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문법을 이용해서 높이기

어휘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높이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한국어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어에서 높임법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높이는 방법 외에 문법적으로 정연한 높임법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대화의 상대를 높이는 방법과 문장의 주체를 높



이는 방법이 다르다.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어에 ‘-(으)시-’를 첨가하고, 대화하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습니다’나 ‘-요’와 같은 형태를 덧붙여서 말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손을 잡다’라는 문장에서 동사 ‘잡다’에 ‘-으시-’를 첨가하여 ‘잡으시-다’라고 하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 되고, ‘-습니다’를 첨가하여 ‘잡-습니다’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 된다.

상대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두 가지 높임 방법 중에서 한국어는 특히 대화하는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발달했다.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높이

는 정도에 따라 아주 높이는 경우에서부터 아주 낮추는 경우까지 4~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를 높이는 방법은 다시 공적인 상황에서 예의와 격식을 차려 말하는 것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친근하게 높여 말하는 비격식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경우에는 서술어에 ‘-습니다’를 덧붙이고, 뒤의 경우에는 ‘-요’를 첨가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에 ‘-습니다’를 덧붙인 ‘먹습니다’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고, ‘-요’를 덧붙인 ‘먹어요’는 가까운 사람에게 부담없이 친근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높임	낮춤
격식 상황	먹-습니다	먹-는다
비격식 상황	먹-어요	먹-어

나이가 많으면 높인다

높임법은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대화를 할 때 사용한다. 이 때 높임법 사용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이’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법을 사용하여 말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보다 상대방이 나이가 적더라도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말을

놓지는 않는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끼리는 같은 또래라 해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친밀해진 뒤 나 서로 편안하게 말을 하기로 합의한 뒤 말을 놓는다.



나이와 계급·직위의 관계

군대나 공무원 집단같이 서열이 엄격한 사회에서는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하기도 하지만 나이 차이가 클 때에는 나이 적은 상사가 나이 많은 부하에게 함부로 낮추어 말하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직위나 학교의 선후배 관계도 높임말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 직위가 낮거나 후배 되는 쪽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선배에게 높임말을 사용한다. 나이와 직위가 어긋날 경우에는 서로 높임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척의 나이와 높임법

친척 간의 항렬은 한국어에서 높임법의 사용을 결정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된다. ‘항렬’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몇 대 후손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한국은 친족 관계에서 항렬의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말하는 사람의 나이가 상대방보다 많더라도 상대방의 항렬이 높으면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언어 예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렬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서 항렬의 차이에 따른 높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중요하다

말하는 상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따라서도 높임법의 선택이 달라진다. 방송, 강의, 연설 등 공적인 상황에서는 앞의 여러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높임법으로 말을 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높임말을 쓰는 것이 보

통이다.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방송이나 세미나 등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높여 말한다.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가족을 가리킬 때에도 높여 말한다. 스승이나 윗사람의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높여 말하고, 윗사람의 아들이나 딸은 ‘아드님’ 또는 ‘따님’으로 높여 말한다. 하지만 손수건이나 벡타이 같은 소유물은 높여 말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높임법이 예전에 비해 단순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복잡하여 한국 사람들도 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13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한국어는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했다. 불어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 일반적인 뜻의 'tu'나 높임의 뜻을 지닌 'vous'로 나뉜다. 영어에서는 친구는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 대통령에게도 이름을 부르거나 'you'로 통일하여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위아래나 남녀, 친족 관계,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부르는 말이나 가리키는 말이 달라서 이를 어기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름을 부르는 법

한국에서는 친구나 동료 또는 윗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직함 없이 이름만으로 부를 수 없다. 상대방을 부를 때에는 2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을 대우하는 정도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다.

영어에서는 전체 이름을 ‘이름-성’ 순으로 말하는 데 반해, 한국 사람은 ‘김-철수’처럼 ‘성-이름’ 순으로 말한다. 허물이 없는 친근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는 보통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른다. 친구 사이에 ‘성-이름’을 모두 부르면 다소 거리감이 있거나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거리가 멀거나 아예 친분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 또는 영업장 같은 곳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부를 때에는 ‘김철수 님’이나 ‘김철수 씨’처럼 전체 이름 뒤에 ‘씨’나 ‘님’을 붙여서 상대를 높인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에는 ‘철수야’처럼 이름만 부른다. ‘김철수’처럼 성을 함께 부르는 것은 특별히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음을, 또는 정반대로 권위를 버리고 자녀를 친구처럼 대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름이 아닌 호칭들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서 ‘선생’, ‘사장’, ‘과장’, ‘감독’처럼 직함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는 직함 뒤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님’을 붙여 ‘선생님’, ‘사장님’, ‘과장님’, ‘감독님’처럼 직함만으로 부를 수 있다. 직함 앞에는 다시 ‘성’이나 ‘성-이름’을 붙여 ‘김 선생님’이나 ‘김철수 선생님’처럼 부를 수 있다.

학교나 직장에 먼저 들어온 사람, 또는 학문이나 기능에서 앞서는 사람은 흔히 ‘선배님’이라고 높여 부른다. ‘-님’과 비슷한 의미로 ‘씨’가 있는데, 직함 뒤에는 사용

하지 못하고 ‘김철수 씨’처럼 이름 뒤에 쓸 수 있다. 이때 성을 빼고 ‘철수 씨’처럼 말하면 다소 격식을 갖추지 않은 표현이 된다. 반대로 ‘김 씨’처럼 이름 없이 성 뒤에 쓸 때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인상을 준다.



친족을 부르는 법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 제도는 여러 세대가 한집에서 함께 생

활하는 대가족 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한국어에서는 혈연이나 혼인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를 이르는 말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 며느리, 사위,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시댁 등의 가족 관계에 따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이 다양하다. 영어에서 ‘aunt’ 하나로 두루 가리킬 수 있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친족 관계에 따라 ‘큰어머니(아버지의 형의 아내)’, ‘작은어머니(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 ‘이모(어머니의 여자 형제)’, ‘고모(아버지의 여자 형제)’ 등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한국어	영어
형	brother
오빠	
누나	sister
언니	

형제 관계에서도 상하 관계나 성별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다르다. 영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 관계 없이 남자 형제는 ‘brother’, 여자 형제는 ‘sister’라고 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손위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화자가 남자라면 ‘형’이라 하고, 여동생이 부를 때는 ‘오빠’라고 한다. 또 남동생이 손위의 여자 형제를 부를 때는 ‘누나’라 하고, 여동생이 부를 때는 ‘언니’라고 한다.

자신의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아빠’나 ‘엄마’라고도 하지만 커서는 잘 쓰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 뒤에 높임의 뜻을 지닌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부모를 높여 말하거나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를 가리킬 때 주로 쓴다.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 상대방을 ‘여보’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이름 뒤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붙여 ‘○○ 아버지’, ‘○○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남편은 아내를 ‘임자’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을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름을 귀하게 여겨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특히 자기 부모나 스승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름 글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이 ‘김철호’일 경우 그대로 말하지 않고 ‘김, 철 자, 호 자’라고 말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척?

한국어에서는 친족들 사이에서 쓰는 말을 일상적인 관계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머니’는 본래 부모와 형제 관계에 있는 여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결혼한 여자를 부를 때 두루 쓴다. 마찬가지로 ‘아저씨’는 아버지와 형제별 되는 남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남자 어른을 부를 때 두루 사용한다.

‘할아버지’는 본래 ‘아버지의 아버지’를,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지만 나이가 지긋이 든 남자나 여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 두루 쓴다. '형, 오빠, 언니, 누나' 역시 형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남남 사이에서 친분이 있는 순위 사람을 정답게 부를 때 흔히 쓴다.

연인 사이에서는 젊은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애인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골 가게의 여주인을 '아주머니'라 부르기도 하며, 가까운 친구의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니'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밖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호칭으로는 '학생'이나 '사장님' 등이 있다. '학생'은 주로 어른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이름을 잘 모를 때 사용하며, '사장님'은 규모에 관계없이 회사나 상점의 주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또는 종업원이 남자 손님을 부를 때 자주 쓴다.

한국어는 사람을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이 복잡하여 한국 사람도 제대로 구별하여 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14

소통을 위한 약속들

“국어 기본법”은 왜 생겨났나

언어는 사회성을 지닌다.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를 따른다. 언중들은 언어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도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스로 조절해 나간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언어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언어 변화도 급격히 진행되어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합



리적인 국어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글과 한국어는 한국 사람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미미했었다. 1948년 공포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 밖에 한글 및 한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몇 가지 법률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여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5년 1월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 기본법”은 어떤 내용인가

“국어 기본법”은 먼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로 한글을 규정했다. 또한 한국 사람의 모든 언어 생활은 한국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불필요한 한자어나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를 쉬운 한국어로 다듬을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 기관의 공용 문서, 법규 문서, 그 밖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재 지원 및 국어 전문가 양성 등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 규범은 왜 생겨났나

“국어 기본법”처럼 정식 법령은 아니지만,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말과 표기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1930년대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당시 민간 단체가 주축이 되어 말과 글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정서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생겨난 정서법이 현재 한국어의 말과 글에 대한 규정의 바탕이 되었다.

한글 창제 후 19세기 말까지는 한국어 표기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고 그냥 언중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언어 사용이 이루어져 왔다.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누구의 말과 표기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기 어려웠다. 한글 창제 당시에 따랐던 형태 위주의 표기 전통은 그 뒤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표기의 혼란 정도가 더했다. 그러다 19세기

말 무렵부터 한글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문자로 인식되고, 교과서나 국어사전의 출판 등에 따른 통일된 표기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어문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국어의 말과 글에 대한 규범은 언어에 대한 규범과 문자(표기)에 대한 규범으로 나뉜다. 언어에 대한 규범은 “표준어 규정”으로, 여기에는 표준 어휘와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표기에 대한 규범을 정한 것은 “한글 맞춤법”이다. 그리고 외래어를 표기하는 규범으로 “외래어 표기법”과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범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각 규정은 시행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1988년에 개정 고시되어 1989년부터 시행해

한국어의 어문 규범

- 한글 맞춤법 (1933 제정, 1989 개정)
- 표준어 규정 (1936 ‘표준말 모음’ 사정, 1989 제정)
- 외래어 표기법 (1940 제정, 1986 최종 개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48 제정, 2000 최종 개정)

오고 있다. 표준어에 대해서는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간되어 사용되다가 1988년에 정식으로 고시되어 198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194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가 몇 차례 개정이 되었다.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48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현재는 2000년에 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어문 규범은 어떤 내용인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법에 맞게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형태 위주의 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물’과 ‘고기’가 결합한 ‘물고기’를 [물꼬기]로 발음하지만, 원래 형태를 밝혀서 발음과 관계 없이 항상 ‘물고기’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은 철자에 대한 규정 외에 띄어쓰기 규정과 부록으로 ‘문장 부호법’을 포함하고 있다. 한글은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낀 경우 등 한국어를 익히는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들

2004년 중국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한 대학이 20여 개였던 것이 2009년에는 70여 개로 늘었다.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는 한국어 교육 강좌를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다. 일본에는 사설학원을 포함하여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곳이 3,000여 곳이나 된다. 2007년 일본 문부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286곳에 이른다고 한다. 몽골에 개설된 한국어학과는 15개 이상이며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3천여 명에 이른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



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구권 지역에서도 한국(어)학과의 개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구권에서는 1983년에 폴란드의 명문 바르샤바 대학에 한국어과가 가장 먼저 개설되었다. 1995년에는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2005년에는 이집트의 아인샴스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는 등, 현재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터키,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등을 포함하여 총 9개국 10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현재 국외에서 한국어학과를 운영하거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64개국 742개 대학에 이르며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은 2천 개가 넘는다.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1990년부터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문맹 퇴치, 특히 개발도상국의 모어 발전과 보급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상 이름을 한글을 창제한 임금의 칭호를 따서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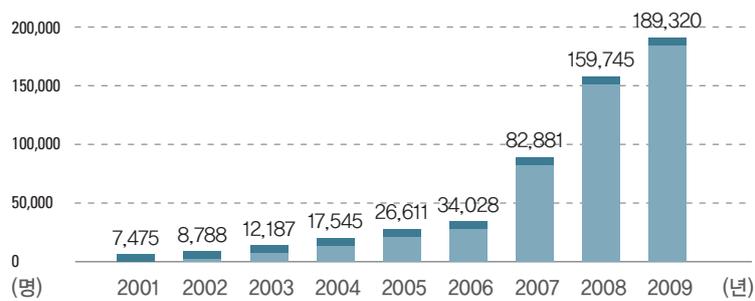
» 세종대왕상 시상 장면
(유네스코)

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라고 부른다. 1989년 6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따라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하여 1990년부터 대상자를 뽑아 문맹퇴치의 날인 9월 8일에 수상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했으며, 2007년 9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공개어로 채택했다.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된 것은 한국어가 당당히 세계 공용어의 대열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한국어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빠른 증가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자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통계

한 해 두 차례씩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른다. 1997년 첫해 응시자가 2,274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응시자가 19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에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가 있는데,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1997년부터 SAT에 한국어가 시험 과목에 포함되었다. SAT의 외국어 시험 과목으로는 아홉 번째로 채택된 것이다.

1997년 첫 시험 이후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서 2008년에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다음으로 응시자 수가 많았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는 한글로 된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다.



한국어를 알리기 위한 노력

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나라가 64개국이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80여 개국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나라가 많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브라질같이 큰 나라들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이 한두 곳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한국어 보급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어 해외 보급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그 한 예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한국어 진흥과 보급을 위해 ‘세종 학당’을 개별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세종 학당을 2015년까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학 진흥을 위해 파견하는 한국어 펠로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6

한국어의 미래

한국어가 맞았던 위기

세계의 소수 민족 언어 보전에 힘쓰고 있는 소멸위기언어연구소(Living Tongues Institute for Endangered Languages)와 미국 국립지리학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2주에 한 개 꼴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간 환경재단인 월드워치 연구소는 2008년 발행한 “세계 언어 소멸 실태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현존하는 언어 가운데 약 6,100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언어 소멸의 원인으로는 전쟁, 대량 학살, 치명적인 자연 재해, 영어·중국어와 같은 특정 언어에 편중된 언어 정책 등을 들었다.

세계의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입안자나 대



»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 지도 (유네스코)

중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발행하는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 지도”에 의하면, 한국어는 사용 인구나 국제적 지위로 볼 때 짧은 시일 안에 사라질 위험성이 있는 언어는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어에도 위기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발행하고 행정이나 법률과 관련된 문서도 일본어로 작성하도록 했다. 국어의 지위를 빼앗긴 한국어는 일상에서만 쓰는 생활어로 전락했다.

1938년 이후 일본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던 정책에서 일본어를 전용하는 쪽으로 식민지 언어 정책을 바꾸었다. 1940년에는 한글로 발간하는 신문을 폐간하는 등 한국어는 생활어로



서의 지위마저 흔들릴 뻔했다. 그러나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등 한글과 한국어를 지키기 위한 한국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방 이후 다시 자유롭게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가 맞고 있는 위기

최근 한국어에 대한 위협 요소로 등장한 것은 과도한 영어 지향이다. 국제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는 세계화의 매개체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영어마을을 만들고, 영어 조기교육 붐이 일면서 부모들이 초등학생은 물론 유아들까



지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강좌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영어 공부를 위해 영어권 국가로 어학 연수를 다녀오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토플이나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거리에는 영어 간판이 즐비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기업 이름도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 가요의 가사에 영어가 들어가는 현상도 일반화되었다.

영어 지향의 극단적인 사례는 영어 공용어론이다. 영어 공용어론은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이나 기업 내에서 강의나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글의 미래, 한국어의 앞날

말과 글의 위상이 높아지면 그것을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며 때때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한글은 21세기 한국인들이 물려받은 고귀한 선물이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한글은 더없이 훌륭한 역할을 해 낼 것이다.

세계는 더 편리하고 빠른 정보화 기기를 만들어내는 데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더 작은 크기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단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기기 개발에서 한국이 앞서갈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글이다. 한글은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효율이 탁월하여 한자나 일본 가나의 7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한글을 가장 중요한 문화산



»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

업 분야의 국가브랜드 상품으로 지정했다. 또한 한글과 관련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글은 문화예술 면에서도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한글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 디자인들이 섬세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으로 한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글자들이 대개 네모꼴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격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한글이 지닌 시각적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디자인의 주제로 삼은 의상이나 소품, 장신구 등을 점점 더 쉽게 접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지니는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한글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2012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와 함께 전시품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 한글 박물관 조감도

| 부록 |

한글·한국어 관련 사이트

1. 한글·한국어 정보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누리 세종 학당	www.sejonghagdang.org
디지털 한글 박물관	www.hangeulmuseum.org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한국어세계화재단	www.glokorean.org
한국어진흥재단	www.klacusa.org

2. 한국어 교육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klec.cuk.ac.kr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kffi.konkuk.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www.ije.ac.kr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intlcenter.kmu.ac.kr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센터	klcc.korea.ac.kr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koreanclass.pcu.ac.kr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pnuls.pusan.ac.kr
상명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교육원	cklc.smu.ac.kr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language.snu.ac.kr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kli.sunmoon.ac.kr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ilre.yonsei.ac.kr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ile.ewha.ac.kr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	cie.chungbuk.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제교육센터	cie.icu.ac.kr
한국언어문화연구원	www.kolang.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www.hufs.ac.kr/hufskorean
한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www.klec.or.kr
호서대학교 국제교육원	ieec.hoseo.edu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huniv.hongik.ac.kr/~korean
KBS 한국어진흥원	www.kbsas.com

3. 학회, 연구기관

국어국문학회	www.korlanlit.or.kr
국어학회	www.sk1.or.kr
국제한국어교육학회	www.iakle.com
한국방언학회	www.sokodia.or.kr

한국사전학회

korealex.org/sobis/korealex.jsp

한국어미학회

www.semantics.or.kr

한국어학회

www.koling.org

한글학회

www.hangeul.or.kr

한국어교육학회

www.koredu.org







